

## ■ 반갑습니다 - 부산예총 최 상 윤 회장

## 새해 남구 문화예술 발전 전망 밝다

지난해는 부산예총 50주년을 맞아 부산예술문화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숙원사업이던 부산예술회관을 지어 남구에 등지를 틀었다. 12년 동안 수장을 지내면서 각종 현안들을 헤쳐 나온 최상윤(73) 부산예총회장을 만나 2012년 남구 문화예술의 전망과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 근황은

▲올 2월로 임기가 끝난다. 현재 인수인계 중이다. 2월18일 선거가 치러지는데 정관에 의해 선거당선 즉시 새 회장이 취임하게 된다. 지금은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다.

## - 지난 한해를 평가해 주신다면

▲지난해는 부산예총 50주년을 맞아 부산문화예술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작년 3월3일 남구에 새동지를 틀었는데 남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사람들은 성정이 매우 동적이라 부산국제영화제, 락 페스티벌, 불꽃축제 같은 역동적인 행사와 잘 어울린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세월을 먹고 사는 생물이자. 무슨 행사는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올 한해 부산예술문화의 화두는 무엇이고 사업계획이 있다면

▲부산은 지리적 여건상 외래문화의 유입과 유출이 용이하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크다. 문화는 예산에서 시작해 예산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경제문제에 급급해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 경제와 문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최상윤 회장이 지난해 문을 연 부산예술회관 입구에서 새해 남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문화회관 등 잘 갖춰진 인프라 최대 장점

## 교육도시 특성 살린 동적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21세기는 문명일체의 시대다. 상품도 좋은 디자인과 포장에 있어야 가치가 있듯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읽고 산업에 반영해야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제 문화도 투자개념으로 봐야 된다. 지역의 인재와 문화가 사장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따라주길 바란다.

-한국문화예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의 지방분권을 위해 많이 노력하셨는데

▲2년간 활동하면서 '최지방'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전체예산의 82%가 수도권 몫이고 나머지 18%가 지방의 몫으로 배분되면 불합리한 예

산비율을 30%까지 끌어 올렸다. 1주일에 한 번씩 서울을 오가며 열을 올린 결과다. 1명뿐이던 지방출신 인사가 지금은 3명으로 늘어나서 좀 더 희망적이다.

-남구의 문화발전을 위한 개인적 견해를 듣고 싶는데

▲남구의 예술문화 전망은 밝다. 무엇보다 인적자원과 빼어난 자연경관 등 인프라 구축이 잘 돼있다. 교육도시의 특성과 지리적 조건을 잘 살려 기획하고 운영하며 구청장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5월 젊음의 광장 축제 때는 예산이 전무해서 무리한 투자를 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올

해 예산이 반영되면 차기회장이 여건을 잘 활용해 활성화시키기 바란다. 유엔대축전 같은 국비지원 축제도 묵념이나 기념행사에서 축제분위기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클래식보다는 대중음악이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한다. 박물관 담벼락을 아마추어 작가들의 전시장으로 활용한다면 대학가에 비해 썰렁한 거리분위기가 한층 나아질 것이다. 축제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한다. 특별 기획전 등 유인책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일반인들이 문화와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지역민들에게 당부 한마디

▲타 지역민들에 비해 남구주민들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문화회관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그 문화를 수용하는 수준이 높아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하겠다. 특히 이기대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당이다. 남평해 있는 횡집 등을 정비해 해양경관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형적·지리적 문화 인프라를 십분 발휘하길 기대한다.

한정미 기자

최 상 윤 회장은 지방 인사로는 최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문화의 지방분권을 위해 혼신의 역량을 다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교수 출신인 최 회장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부산의 문화발전에 큰 획을 그어 왔다.

## 201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 포상



홍조근정훈장

성주섭

• 문현4동장  
• 총무국장  
• 사회산업국장  
• 의회사무국장



녹조근정훈장

강승모

• 주민세담당  
• 우암1동장  
• 감만2동장  
• 대연4동장



녹조근정훈장

정옥근

• 대연4동장  
• 청소행정과장  
• 세무과장  
• 문현3동장



녹조근정훈장

김경영

• 민원봉사과장  
• 지역경제과장  
• 의회 전문위원  
• 용당동장



녹조근정훈장

손상근

• 예산담당  
• 경리담당  
• 문화관광담당  
• 감만1동장

그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며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헌신해 온 성주섭 전 의회사무국장 등 5명의 201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성주섭 전 의회사무국장은 71년 입공직 후 40년 가까이 공직에 몸담으며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생산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문화조성, 열린 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강승모 전 대연4동장은 79년 공직을 시작해 32년간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지난 93년 세무직으로 전직한 후 세정발전과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방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정옥근 전 문현3동장은 73년 부산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성실한 생활과 봉사정신으로 많은 바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 특히 2009년 문현3동장으로 부임해 주민자치회의 탄력적 운영과 동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경영 전 용당동장은 71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근면성

실함으로 주요사업과 시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용당동장으로 재직당시 행복나누기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노인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손상근 전 감만1동장은 7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주요보직을 두루 거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해 왔다. 2007년부터 4년간 동장으로 근무하며 자치봉사를 구성해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한편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큰 힘을 보탰다.

유경희 기자

## ■ 이런 모임 어때요 - 조상영 웃음연구소 청소년 웃음 봉사단

## 웃음 전파하며 밝은 사회 만들어 가요

## 매월 경성대 일원서 캠페인

## 주민 삶에 활력 불어넣어

웃음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임이 있다.

청소년 웃음봉사단은 1년 전 웃음으로 봉사하자는 단 뜻을 같이한 청소년 4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4째주 정기 모임을 갖고 경성대와 부경대 일원에서 웃음캠페인을 펼쳐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웃음'을 전달하고 있다. 모임에는 학부모들도 동참해 '웃으며 살아요',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거리에서 웃을 케릭터 얼굴 모양을 양손에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넨다. 행인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눈길도 안주고 스치는 사람과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 때문에 내가 웃는다'며 격려해 준다.



청소년 웃음 봉사단이 대학교에서 웃음봉사를 마친 후 한자리에 모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초등학교 6학년 홍은현양과 황효준·조원열군은 웃음을 통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처음에 거리에 나왔을 때는 정말 부끄러웠는데 사람들이 웃으며 눈길을 주니까 행복합니다. 나도 웃으니 즐겁고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합니다"

봉사단 회원 대부분은 '조상영 웃음연구소' 회원들의 자녀들이다. 학부

모들은 봉사를 통해 자녀들의 인성이 점점 밝아지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견해 하고 있다. 앞으로 봉사단은 웃음을 전파하기 위해 재미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소품을 만들어 나갈 계획에 한껏 열매 있다.

한편 봉사단 회원들은 웃음전도사역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용돈을 모아 불우이웃돕기에도 참여해 오고 있다.

최정순 기자

## 웃는 얼굴이 친절의 시작이죠

## 오 록 도 친절 지기

## 용당동 공승희씨

11월 민원인들의 따뜻한 친절카드의 주인공이 된 공승희(지방행정서기·33세)씨. 그는 용당동주민센터의 친절마스코트로도 손색이 없다.

주민 정재현씨는 전임신고 하러 동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승희씨의 친절함에 매료돼 친절엽서를 보냈다. 또한 윤춘수씨 역시 웃는 얼굴로 이것저것 친절히 민원을 처리해 주는 승희씨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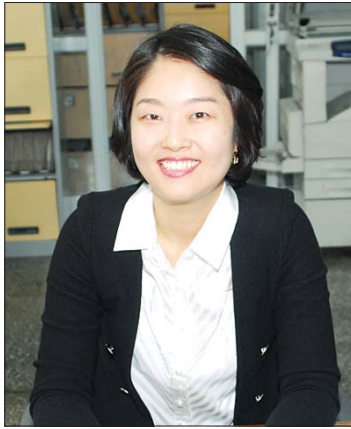
공승희씨는 2007년 경남 함양에서 공직에 첫 발을 뒀었다. 이후 2011년 2월 용당동주민센터의 일꾼으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단지과 대학교가 근처에 있어 점심식사 시간에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

이 이 용 하 고 있 다 . 자주 보는 민원인과는 일상적인 대화도 나눌 만큼 친근하기도 한다. 민원인 중에 일본에서 살다가 딸과 함께 여생을 부산에서 보내려고 방문한 김소진 할머니께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준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가끔 전문 신용업을 하시는 분이 방문하여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발급하러 왔다가 다른데서는 위임장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까다롭다며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럴 때는 참으로 난감하기도 하지만 더 원리원칙대로 처리 하려고 노력한다. 승희씨는 용당동 주민이자 주민센터의 직원으로 용당동이 더욱 더 예

최정순 기자



차이 가고 발전하는 동네가 되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다.

승희씨는 공직자로서 남들의 기준 보다 자신의 기준에 부끄럼이 없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길 소망한다.

최정순 기자

## ■ 경로당 탐방 - 우암1동 무궁화 경로당

## 오순도순 정 쌓으며 건강한 노후 보내

## 남녀 회원 46명으로 구성

## 화합바탕 모범적 운영 명성

무궁화경로당은 무궁화 꽃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는 공간으로 명성이 높다. 현재 이곳에는 유성상(77)회장을 비롯해 남녀 어르신 46명이 생활하고 있다. 1층에는 할머니들이 2층에는 할아버지들이 격의 없이 오가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요즘과 같이 날씨가 추울 때면 외부활동을 가급적 줄이고 실내에서 자녀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우정을 쌓고 있다.

새해를 맞은 어르신들의 소망은 다름 아닌 자녀들의 무사안녕과 자신들의 건강을 손꼽는다. 서예선(73) 할머니는 자손들의 편안한 임진년을 기원했고 한만남(81) 할머니는 날씨가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을 살짝 얘기했다.

화합과 민주, 자립이 이웃 경로당의 운영지침이다. 그래서인지 50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부대끼며 생활하고 있는 무궁화경로당은



무궁화경로당 회원들이 한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한 해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다름이 없는 경로당으로 유명하다. 모든 경조사와 행사는 화합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불만의 소리가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경로당 회원들은 꽃피는 봄이 오면 체조교실 등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어르신들이 작은 바람을 밝혔다. 국가의 지원 아래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만큼 경로당을 찾기가 쉽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

다. 또한 취사도우미와 음향시설을 설치해 줄 것도 밝혔다. 이밖에도 겨울철 난방을 위한 보조금 인상도 고려해 달라고 얘기했다.

무궁화경로당 어르신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막연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에서 젊음이 못지않은 건강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어르신들의 바람처럼 노인복지가 더욱 향상되는 임진년 한해를 기원해 본다.

김옥련 기자

##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1월16일~1월31일  
지방세 납부는 인터넷, 전국은행 ATM기, 장애인 전용 납부기, ARS 무료전화 또는 지방세 납부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http : //etax. busan. go. kr 접속 전자납부  
- ATM기에 신용(체크)카드 삽입 후 화면상 '지방세납부' 메뉴 이용  
- 무료전화 080-858-3008 ARS 지방세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 납부계좌에 계좌이체 납부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 시 건당 36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 됩니다

## 2012년도 적십자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 모금기간  
- 집중모금기간 : 2012. 1. 10~2. 29(51일간)  
- 추가모금기간 : 2012. 3. 1~3. 31  
- 연중모금기간 : 2012. 1. 1~12. 31(연간)

• 납부자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  
\* 국제정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 법인 : 전액 손금산입 (단, 연간 소득금액의 50% 이내인 경우)

## 환경피해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 신청내용 및 절차  
- 신청내용  
▷ 생활주변의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  
▷ 공장·기업의 폐수, 매연, 악취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 요청사항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환경보전과)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신청기관안내  
▷ 전화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051-888-239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504-9303  
▷ 홈페이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 : //edc. me. go. kr

**윌리스윙병원**

중풍·치매·파킨슨병 두통·어지럼·이명클리닉 개소

신경과 / 내과 / 안과 / 피부과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한방과

남구청 입구, 못골전철역 도보 2분 **요양병동 운영**

**Tel. 638-7575** www.willishospital.co.kr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